



보도 일시	<b>&lt;전매체&gt; 12.22.(목) 09:00</b>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장 길동 (044-204-7480)
		담당자	사무관 모윤택 (044-204-7482)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감독2팀	책임자	팀장 임연하 (02-3145-8382)
		담당자	조사역 고선희 (02-3145-8387)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 중소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2.22) -

- 3고(高) 등 복합위기 장기화에 따른 위기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지원 위해 중소기업부-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행연합회 협력
- 중소기업부, 금융감독원·은행으로부터 재기지원 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 기업 선정 절차 간소화 및 협업 은행과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2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12.22.(목) 09:00 / 금융감독원 연수원
- (참석자) 중소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은행연합회 회장, 4개(국민, 신한, 우리, 대구) 은행 부행장

이번 업무협약은 3고(高)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정책자금, 진로제시 및 회생 상담(컨설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상담(컨설팅)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 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상담(컨설팅)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 타당성 심사 없이 최소기준(신용등급 B·C)만 확인

진로제시 상담(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21년부터 중진공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재기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구조개선계획 수립(상담(컨설팅)), 신규 유동성 공급,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협약은행) 기존 5개(엔에이치(NH)농협, 기업·경남·산업·수출입은행) + 추가 4개(국민·신한·우리·대구은행, 12.20)  
(정책자금) ('22년) 350억원 → ('23년) 450억원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전담조직(TF)를 뒤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 질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형(모델)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영 장관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참고1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의 위기기업 지원정책과 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연계해 기업 위험에 따른 맞춤형 상담(컨설팅) 및 협업은행과 공동 금융지원

- ◇ (은행권) 은행이 중소기업부의 기업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 중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 중소기업부에 추천
- ◇ (중소벤처기업부) 은행권 추천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제공
  - ①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평가시 가점 부여, 신속 심사 등 절차 간소화
  - ② 협업은행과 함께 위기 기업에 신규자금, 금리조정 등 공동 금융지원
  - ③ 기업 진단을 통해 운영자금 공급 및 법적 회생절차 등 상담(컨설팅) 연계 지원
- ◇ (금융감독원) 은행별 협약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은행 내 모범사례 전파

※ '17.11월 협약과 차이점 (협업 은행의 기능 추가)

구분	기존		추가
신규 추진(안)	정부지원	구조조정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프로그램 (협업은행과 공동금융지원)
'17년 협약	사업홍보	기업추천	

### < 중소기업부 - 금융권 지원사업 연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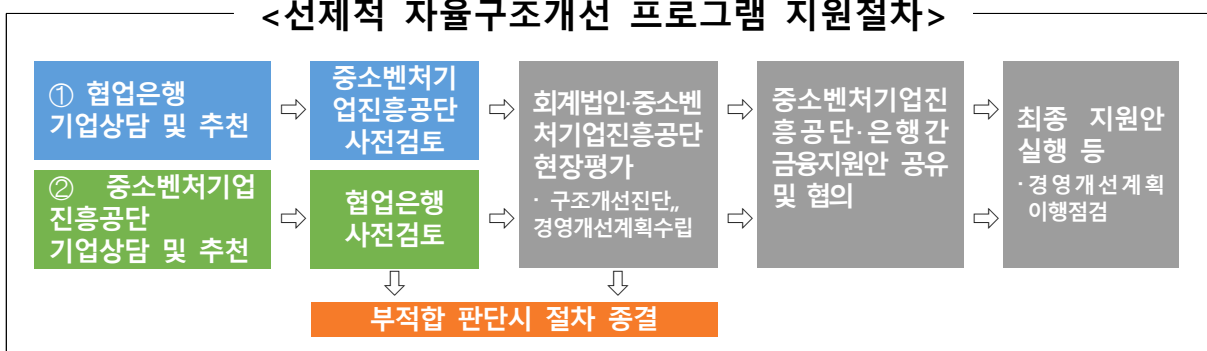
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 (일시적 유동성 위기)	C등급 (경영정상화 가능성 높음)	D등급 (경영정상화 가능성 낮음)
중소벤처 기업부 지원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진흥공단 + 은행 공동금융지원</li> <li>* 신규자금, 만기연장, 금리인하</li> <li>-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li> </ul> </li> </ul>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제시 상담(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진로를 제시하고, 운영자금·회생컨설팅 지원 제도와 연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상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가까지 절차 지원</li> </ul> </li> </ul>
금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금융, 특별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연장, 금리인하, 상환유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자금, 만기연장, 금리할인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재조정</li> </ul> </li> </ul>

## 참고2

## 선제적 자유투자 개선 프로그램

◇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협업은행과 공동으로 신규자금, 금리조정, 만기연장 등 지원

- (대상) 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에 모두 대출잔액이 있는 B, C등급 중소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
  - 특히, 신속금융지원 및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검토 기업 등 기업개선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추천



- (지원내용) 회계법인 등의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①금융지원 또는 ②경영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지원
  - ① (금융지원) 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을 실시하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기업당 최대 60억원)

### 은행 금융지원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방안

구분	은행 금융지원*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지원			가점*3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1	만기연장, 금리조정	총한도 5억	-*2		0점
2	신규대출 1억원 미만	총한도 5억	택일		2점
3	신규대출 1억원 이상	운전대 한도 10억 시설대 한도 60억	가능	가능	3점

\*1 은행추천일 기준 최근 1년 ~ 향후 6개월 이내 기간 기준

\*2 신규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하며, 가능한 경우에도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 택일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원여부 평가시 은행추천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토록 추가 혜택 마련

② (경영개선계획 수립)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심층분석, 계획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경영개선 계획 수립 자문 지원을 병행 (기업당 1,760만원 이내)

□ (협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간 별도 업무협약이 선행돼야 하며 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대구)\*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현재 9개 은행을 통해 지원

\* (기존) NH농협, 기업·경남·산업·수출입은행 → (추가) 국민·대구·신한·우리은행

### 1 진로제시 컨설팅

◇ 전문가가 기술성 및 재무 등 진단을 통해 진로(구조개선·회생·사업정리)를 제시하고, 타 지원사업에 연계해 운영자금, 회생·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대상) 은행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등 경영위기기업 중 신용위험평가 B, C등급 중소기업으로 경영진단이 필요한 기업을 추천
- (지원내용)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기술사업성, 재무분석 등 심층진단을 제공하고 필요시 타 지원사업에 연계

<기업 심층진단 결과에 따른 타 지원사업 연계 사례>

- ①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정상화 가능 판단 시 ⇨ '구조개선 전용자금' 연계
- ② 회생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시 ⇨ '회생 상담(컨설팅)' 연계

- (은행추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추천기업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심사\*를 생략하고 지원대상 업종 여부 등 최소기준만 확인해 우선지원

\* 지원 필요성, 지원 기대효과, 기업 재기의지, 지원 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 비계량평가

- (지원규모) 기업당 216만원 이내 지원

### 2 회생 상담(컨설팅)

◇ 전문가를 통해 회생신청에서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관련 절차를 지원

- (대상) 은행이 D등급 판정 기업 중 회생신청 사전협의를 완료되었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의 개시 결정 이전의 중소기업을 추천
- (지원내용) 회생절차 신청~회생 인가까지 소 과정에 전문가 상담, 자문 및 절차 진행을 지원
- (은행추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원여부 심사 시 선발기준 점수의 10%(3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우대
- (지원규모) 기업당 3천만원 이내